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9. 4. 12.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항공운항과	담당자	과장 김상수, 사무관 강정현, 주무관 조동현 ☎ (044) 201-4259, 4312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대한항공 · 아시아나항공과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통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늘(4.12, 9시) 항공정책실장(권용복) 주재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『**긴급 항공 안전 회의**』를 개최하였다.
 - 최근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황 악화와 대한항공 최고 의사 결정권자 부재로 인한 안전약화 우려와,
 - 광주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타이어 파손(4.9)과 대한항공 항공기 이륙 직후 엔진이상으로 회항(4.11) 등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
- 국토부는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
 - 운항, 정비 등 항공운항 관련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, 특히 결함이 잦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항공기는 비행 투입을 전면 보류하고 충분한 정비시간을 갖도록 비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정교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.

- 국토부는 항공사 마다 사업계획 및 노선인가, 항공기 등록 등 각 단계 마다 조종사·정비사 채용, 훈련, 예비품 등 안전 확보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있음을 설명하고,
 - 만약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처분, 노선배분 제한 등 항공 관련 법령상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.
 - 아울러, 비정상 운항시에는 승객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현재 항공사에서 보유한 각종 매뉴얼이 현실에 적합한지를 다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이에 대한항공은 최고경영자 부재에 따라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안전저해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각 부분별 세부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고,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비정상 운항이 증가한 엔진 고장 등 취약분야 개선을 통하여 항공안전을 증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.
-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“현장의 작은 위해요인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항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” 하도록 당부하였다.

<관련 보도내용(머니투데이 등) >

- ◆ 아시아나 착륙 중 타이어 파손.. 광주공항, 29편 결항(머니투데이 4.9)
 - 9일 오전 광주공항 착륙 중 타이어 파손, 부상자 없어...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
- ◆ 한진그룹 비상경영 돌입...조원태 3세 경영 전면에(매일경제 4.8)
 - 삼남매 지분율 6.95% 불과, 상속세만 2천억 이상 추산 등 해결과제 산적, 그룹 “사장단회의 중심으로 안전·회사운영 만전 기할 것”
- ◆ “총담금 문제로 적자 946억 불었다”..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정지(중앙일보 3.23)
 - 아시아나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이 ‘한정’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이틀간 중지됐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강정현 사무관(☎ 044-201-43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